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554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6월 15일 2025년 8월 8일 금요일

광주·전남 'KTX 티켓 전쟁' 해소 방안 찾아야

광주송정~오송 운행 횟수 3배까지 늘릴 수 있는데 안해
열차편 늘리되 오송~수도권 환승 수단 마련 방안 고려를

호남 고속철 예매전쟁에도 불구하고 호남선은 선로용량의 30~40%대 운행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송정에서 충북 오송까지 운행횟수를 3배 가까이 늘릴 수 있는데도 운행횟수를 제한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광주 송정 열차편을 늘리되, 오송에서 수도권까지 환승 수단을 마련해 수도권과 광주를 연결하는 대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7일 광주연구원이 최근 호남고속철도 수요대응을 위한 운영개선방안 전문가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송에서 광주송정까지 1일 운행이 가능한 선로 용량은 178회이지만, 현재 열차는 60회만 운행되고 있다. 오송~전북 익산구간도 하루 175회 운영 용량인데 열차가 하루 68회만 운영되고 있다.

반면 오송~대전 구간(용량 197회/일, 현황 161회/일), 대전에서 동대구 구간(용량 189회, 현황 154회)에서는 각각 용량대비 81.7%, 81.4% 수준으로 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결국 광주 송정에서 오송간 열차를 증편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수도권으로 향하는 오송~평택구간이 문제다. 현재 오송~평택 구간은 선로 용량이 한계여서, 호남선과 경부선 모두 수도권으로 가는 고속철 증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2028년까지 진행중인 평택 오송간 46.95㎞구간의 복선화 작업 완료까지는 현재 수도권까지의 고속철 증편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세미나에서 김환철 한국철도공사 차장은 "고속철 좌석 부족 문제는 광주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며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용량 포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해당 사업이 완료되는 2028년 이후에는 열차 추가 배치 등 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호남고속철의 이용승객은 전체 고속철 이용승객의 3.3%수준이지만, 수요는 12% 수준이라는 것이 박용우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의 분석결과다.

수요는 넘치지만, 차량·선로·정차역 편성 등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진단이다.

실제 광주 송정역 승객 수요는 전북 익산역 대비 1.7배 많으나 좌석수가 태부족이다.

고속철도 편성대수를 보면 익산역에는 고속열차가 70대(KTX 30%,KTX 산천·SRT 70%) 편성됐으나, 광주 송정역에는 48대(KTX 27%, KTX 산천·SRT 73)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 송정·목포 등 호남축 주요 거점역 기준으로 현 열차운행스케쥴 조정이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오송에서 수도권까지 교통환승책을 마련하면서 광주 송정에서 오송까지 열차 운행을 늘리는 유력한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중장기 방안으로는 오송~평택 구간 복선화 이후 호남선 증편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호남고속철 인프라 개선을 단기적으로는 피크타임 수요 대응 추가 증편방안을 마련하고, 수요애 기반한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임광균 송원대 교수는 "평택~오송 구간 복선화 이후에도 선로용량 증가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정량적 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고 후 철도 차량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명옥헌, 백일홍에 물들다 절기상 입추(立秋)인 7일 담양 명옥헌 원림 연못 위로 떨어진 백일홍 꽃잎이 수면을 가득 메우며 수채화 같은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산지 쌀값 21만원 넘어…상승세 이어질 듯

산지 쌀값이(80㎏)이 21만원을 넘었다. 쌀값이 21만원을 넘어선 건 2023년 10월(21만 222원)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수확기 등을 앞두고 산지 유통업체 재고량 등을 고려하면 쌀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처럼 오른 쌀값이지만 치솟는 생산비 등을 고려하면 더 올라야 한다는 게 농민들 반응이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로 파악한 쌀 한 포대(80㎏) 가격은 지난 5일 기준 21만 1600원으로 나타났다.

산지 쌀 가격이 21만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3년 10월(21만 222원)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쌀값은 지난 6월 처음으로 20만원(20만 1680원·6월 15일 기준)을 넘어서더니 20만 7420원(7월 15일 기준)→20만 9312원(7월 25일 기준)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다 21만원대로 올라섰다.

지난해 쌀 생산량(359만 t)이 전년 대비 12만 t 줄어든데다, 정부가 공공비축미(40만 t), 시장격리(20만 t), 벼멸구 등 피해 벼 매입(2 t) 등으로 62만 t을 매입한 게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남도 등 농정당국 분석이다.

매년 수확기(10~12월)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햅쌀 수확 전인 5월부터 오름세로 돌아서는 통상적 쌀값 추이를 고려하면 쌀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특검,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 …법원, 12일 심사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촉각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관련기사 2면〉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12일 결정된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헌장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 현실화하게 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1시 21분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요건에 다 해당한다고 판단해 청구했다. 법에 요건이 규정이 돼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제70조)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 요건으로 명시한다.

특검법에 명시된 김 여사의 수사 대상 의혹은 16개에 이른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에 대한 첫 소환 조사에서 이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16개 의혹 사건 가운데 비교적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된 의혹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란 김 여사가 2009~2012년 발생한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이 의혹은 올해 4월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를 결정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김 여사는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